

목포시사

다 · 셋 · 마 · 담

① 항도 목포

자연환경
도시발달
해운항만
역사
문화유산



목포시사

① 항도 목포

자연환경

도시발달

해운항만

역사

문화유산

다 · 섯 · 마 · 당

목포시민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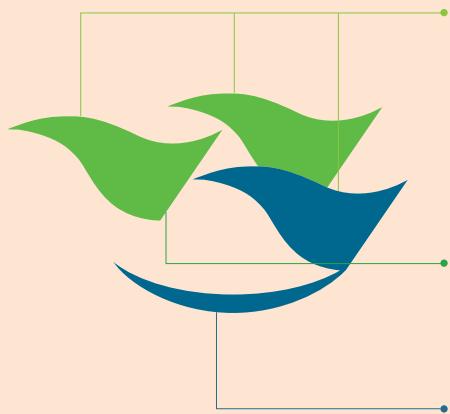
위로는 호남 옥토, 아래로는 다도해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 목포는 해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
요, 정서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멀리 외국으로 오고 가는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은 항구도시
로서의 농후한 면모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영산강 하류의 개발과 더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번영과 영광의 터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민은 모름지기 그 몸가짐에 다음과 같이 긍지를 살려 더욱더 살기 좋
은 고장을 이루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 1 바른 말을 씁니다.
- 2 향토를 사랑합니다.
- 3 거리를 깨끗이 합니다.
- 4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합니다.
- 5 이웃을 사랑하고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목포 상징

마크



세 개의 깃발 출령이는 파도의 모습을 깃발의 역동성으로 단순 표현하여 이미지업(Image-up) 시킴.

깃발을 세 개로 표현한 것은 동양적 삼재(천·지·인) 사상과 완전수 개념을 근간으로 육·해·공 최대의 발전 가능성을 함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관문도시 목포를 의미함.

중앙의 유달산 목포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유달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모아 목포시의 화합과 발전으로 형성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

하단의 배 세계를 누비는 배의 형태로 표현되어 개항 백년의 역사, 동북아 물류 터미널, 다도해 관광 전진 기지, 남도 행정의 요람, 서남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지역 화합을 염원함.

전진하는 배의 모습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조형적 안정감을 부여함.

마스코트

청정도시 목포의 파도와 물의 이미지를 목포시의 새로운 심벌과 결합한 밀레니엄 베이비 마스코트입니다. '포포와 포미'는 목포시의 지명과 향구를 지칭하는 '포(port)'와 아름다움을 '미'를 사용하여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부여한 이름입니다.



슬로건



목포 시화 / 시목 / 시조



시화 / 백목련(白木蓮)

목련과의 교목으로 그 품격이 고매하고 같은 ‘목’자 돌림의 상통성을 갖는다. 초봄 일찍이 흰 봉오리의 꽃을 잎 먼저 피어올려서 그 자태를 자랑하여 ‘문화예술의 깊은 뜻과 순진한 목포인’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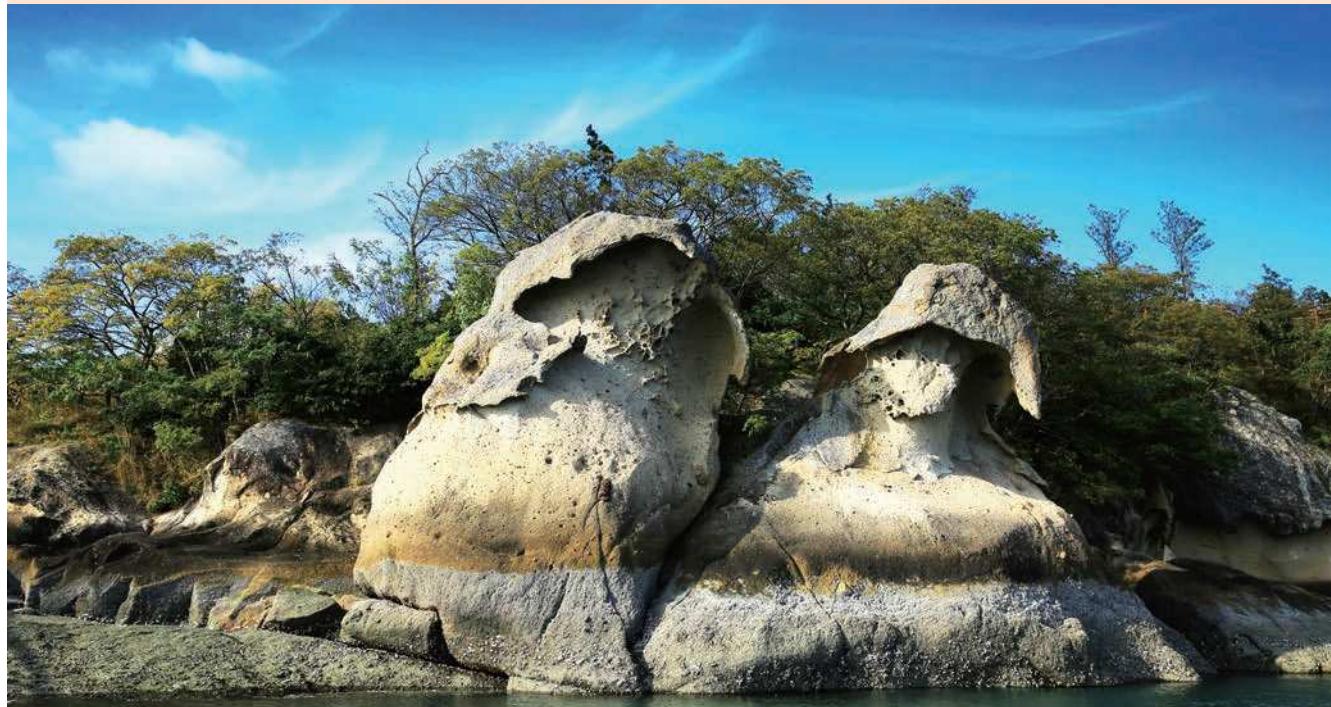
시목 / 비파(枇杷)

장미과의 상록수로 목포 지역에서 재배되며, 꽃은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특이한 생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목포인의 기질을 상징. 열매는 부귀와 불변을 상징하며 잎줄기는 우아한 품위를 상징한다.



시조 / 학(鶴)

삼학도 전설에 등장하는 장수(長壽), 복록(福祿)의 길조로 순고(純高)한 신비의 자태같은 품위와 멋과 낭만의 목포 예술인의 기질을 상징한다.



목포시민의 노래

작사 권일송
작곡 목포음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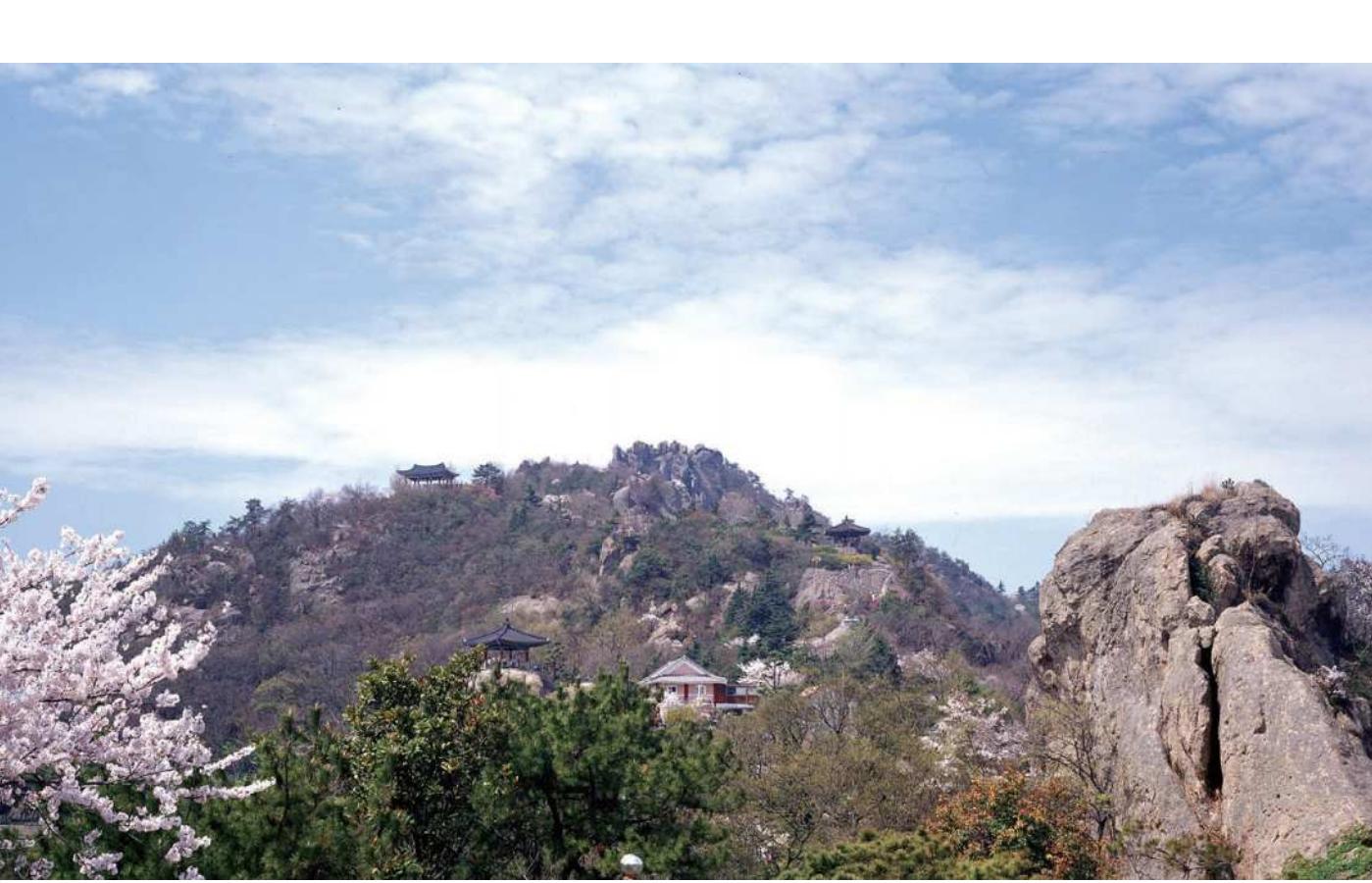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in common time (indicated by 'c')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indicated by '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in Korean. The first staff starts with '빛나거라 남녀 바다 헛빛 도밝아' and ends with a fermata.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유달에 기슭 치는 파도 도높이' and ends with a fermata. The third staff starts with '가슴마다 여울 지는 사랑과 꿈을' and ends with a fermata. The fourth staff starts with '가꾸며 꽃피 우리 자랑의 누리' and ends with a fermata. The fifth staff starts with '(후렴) 아 엣뿌리 그큰기상 다지는 한맘' and ends with a fermata. The lyrics are as follows:

빛나거라 남녀 바다 헛빛 도밝아
유달에 기슭 치는 파도 도높이
가슴마다 여울 지는 사랑과 꿈을
가꾸며 꽃피 우리 자랑의 누리
(후렴) 아 엣뿌리 그큰기상 다지는 한맘
우리 는 목포시민 미더운형제

목포의 찬가

작사 박화성
작곡 손목인

1. 목화꽃 - 송이 송이 들녘에 피고 -
2. 삼학도 - 사라져도 전설은 남네 -
푸른 물결 다 도해 를 감돌아 드네
충무공 가셨어 도노적봉 그대로네
육지 도열리고 - 바다 도열려서 -
민족 혼깊어서 린 - 유달은 날로 푸르러 -
세계의 사연들이 오고 - 가는 곳 -
그정신이 어가는 아들딸을 가꾸는
내고향 - 목포는 문화의 고장 -
내고향 - 목포는 역사의 고장 -
알차게 뻗어나갈 - 미래를 향해 -
홍겹게 걸우어갈 - 결실을 향해 -
나가자 더 나가자 힘차 - 캐
더 - 힘차 - 캐 - - -



유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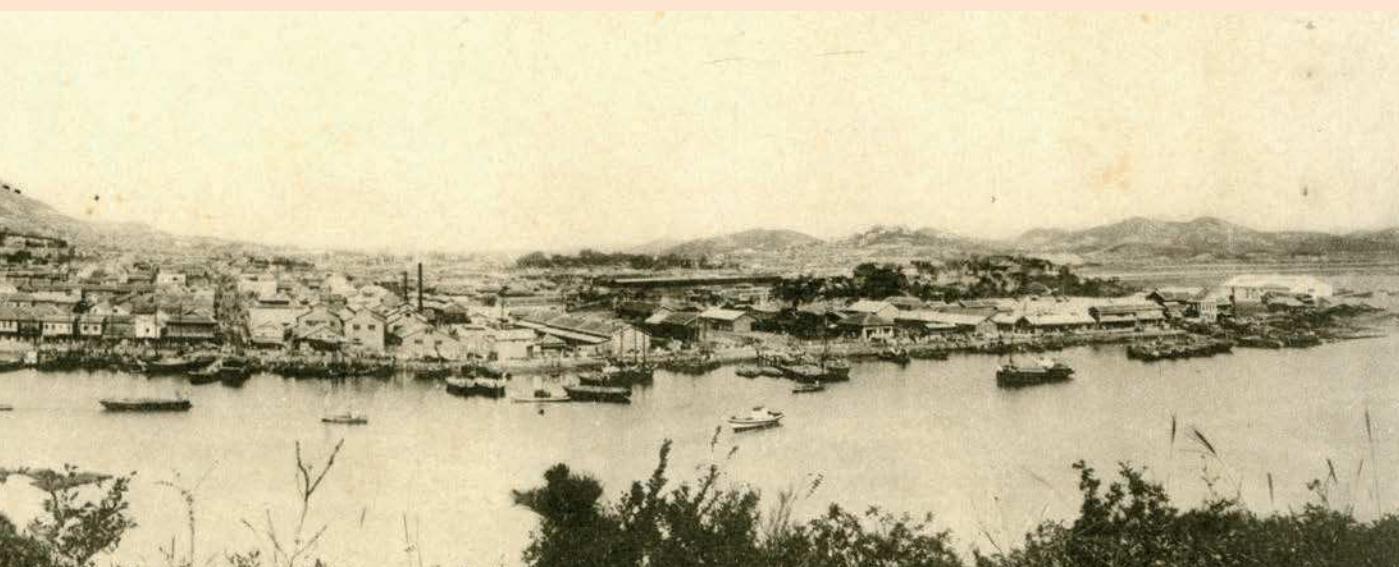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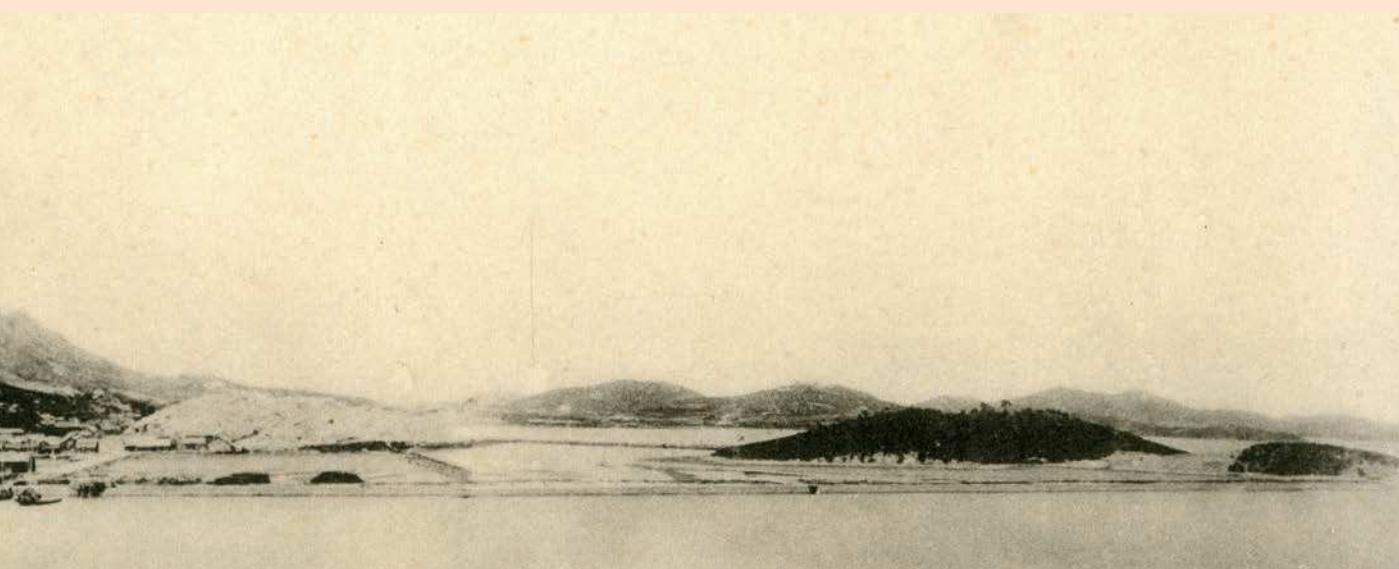
목포진 역사공원



1901년 목포 전경(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1932년 목포 전경(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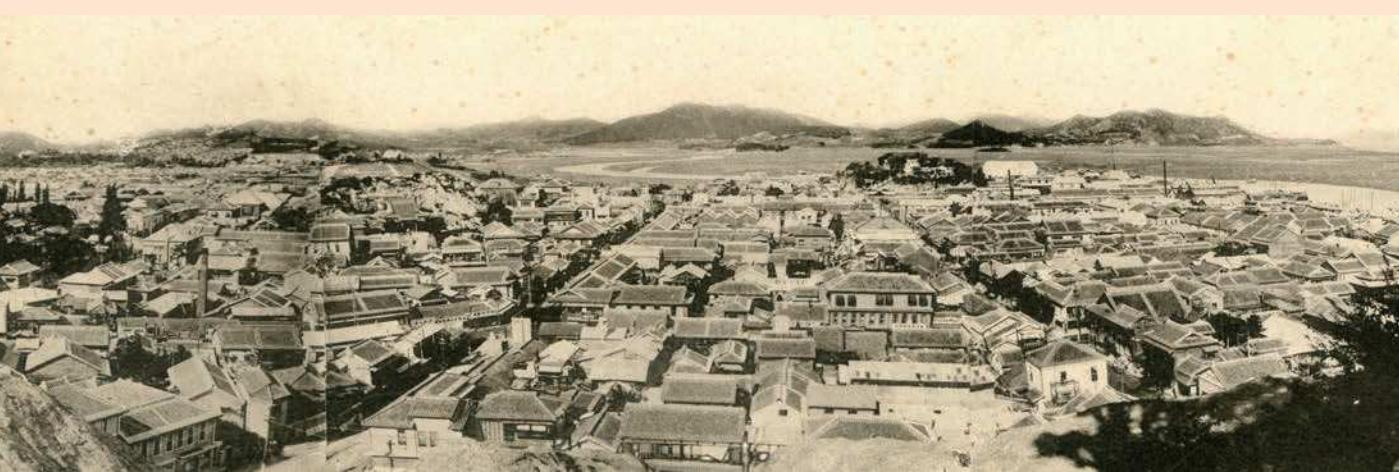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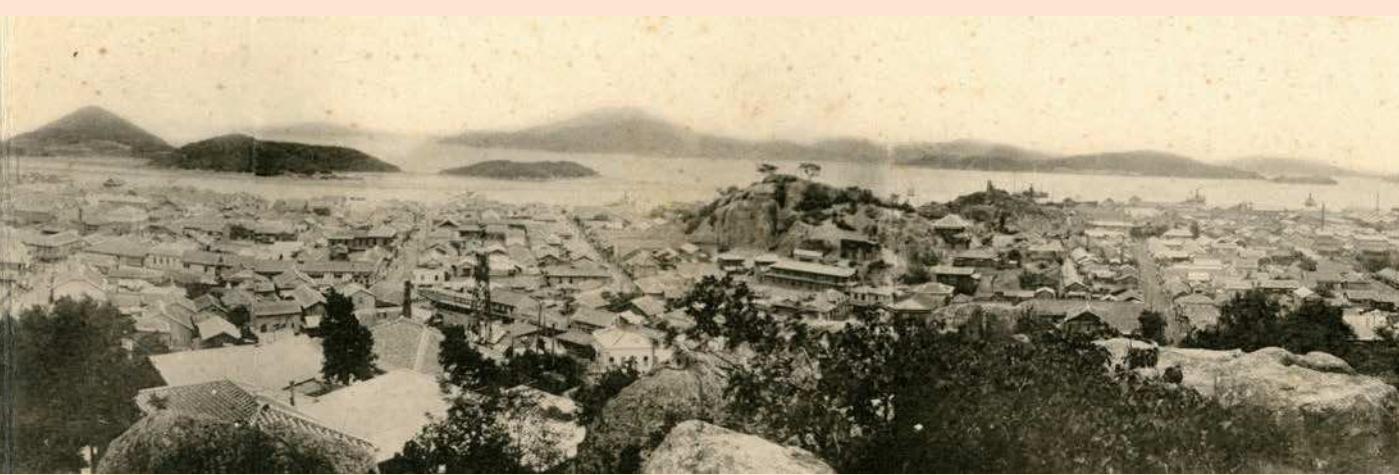
1910년경 목포 전경(목포정명여중 소장)



노적봉 쪽에서 바라본 목포 전경(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목포진 쪽에서 바라본 목포 전경(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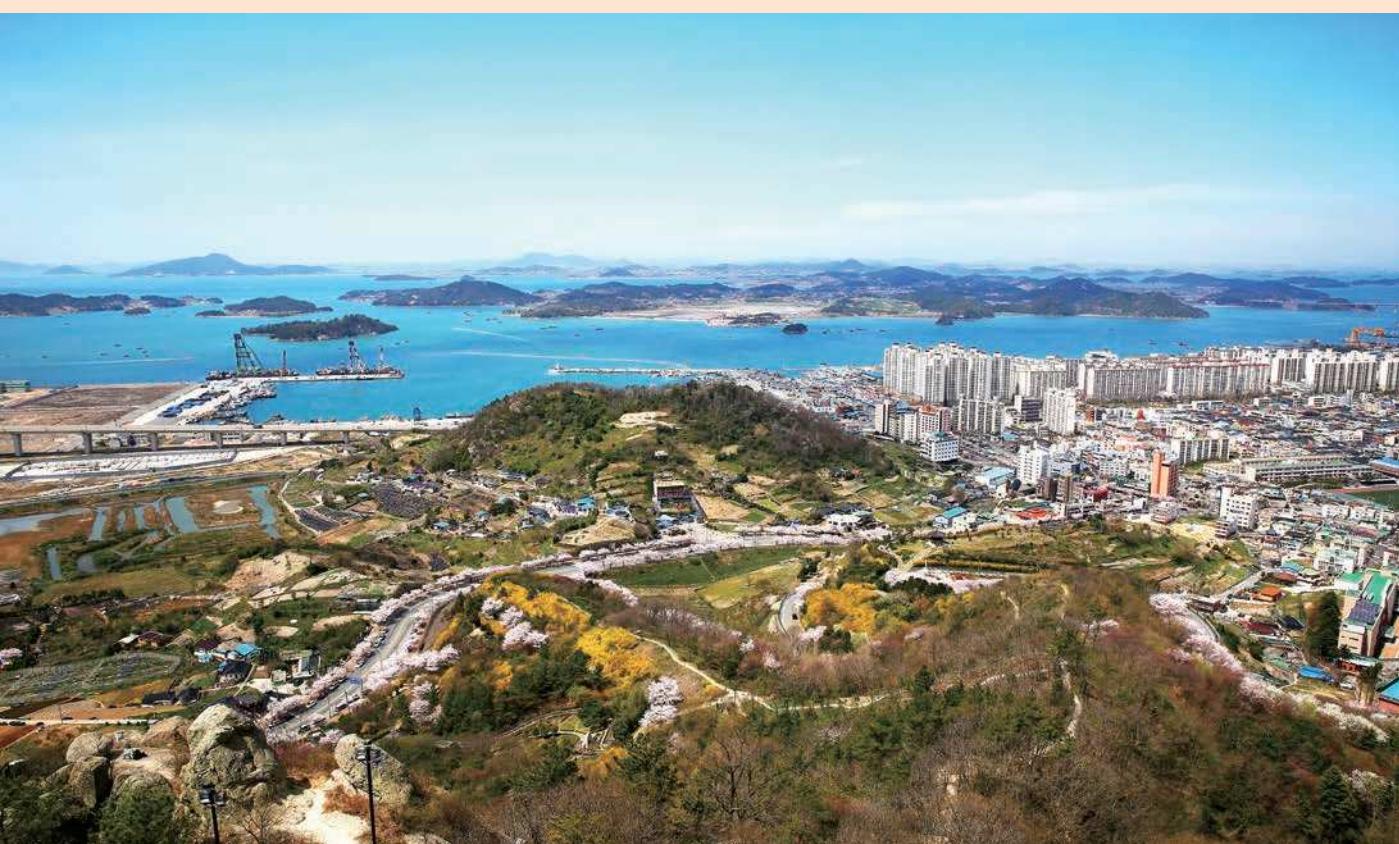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 주변(1923, 차순희 소장)



나주계통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장(1957, 차순희 소장)



삼학도에서 바라본 목포항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항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기념하는 고하도 모충각



국도 1, 2호선 기점 기념비와 도로원표



고하도 조선 육지면 발상 기념비(1936)

| 일러두기 |

다섯 마당『목포시사』의 구성

- 제1권 「항도 목포」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목포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였다. 목포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 전개된 역사·문화의 배경,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권 「예향 목포」는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대중가요·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과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포 정신문화의 전개 과정과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권 「일등 목포」는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포 지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형성·발전·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목포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마을 유래, 그리고 목포의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목포시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정리했다.
- 제5권 「기록 목포」는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와 목포 관련 문헌·사진·물증자료 등의 역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역사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알리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훗날의 사료가 되도록 했다.

서술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목포시사 편찬을 시작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한 범위로 하되,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자료까지 반영하였다.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자료 이용 시 주의 사항

- 다섯 마당『목포시사』의 저작권은 목포시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작·소장한 사진 등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목 차

contents



발간사 / 박홍률

축간사 / 박지원 · 윤소하 · 조성오

총론

일등 목포의 꿈을 키우자!	29
1. 간추린 목포 역사	29
2. 『목포시사』의 편찬 방향	30
3. 『목포시사』의 구성	31
4. 『목포시사』 발간 이후 관리 방안	34
5. 목포의 비전	35

개관

항구와 목포	39
1. 『목포시사』 1권 '항도 목포'의 구성	39
2. 역사 속에 나타난 목포의 항구적 전통	40

제1편 목포의 자연환경

제1장 지리 환경	49
제1절 지리적 특징과 토지 이용	49
제2장 내륙 환경	65
제1절 목포의 지형과 지질	65
제3장 기후 환경	77
제1절 목포의 기후 환경	77

제4장 해양 환경	87
제1절 목포 해양 환경의 특징	87
제5장 생물상	105
제1절 목포의 생태 경관과 갯벌	105
제2절 목포의 철새와 동식물상	113

제2편 목포의 도시발달

제1장 목포의 경계와 도시계획	123
제1절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1897~1910)	123
제2절 이중 도시 목포의 도시계획(1910~1945)	131
제3절 현대도시 목포의 재건설(1945~현재)	144
제2장 목포 인구의 수와 구성의 변화	157
제1절 인구의 기본 현황과 변화	157
제2절 인구구조와 인구 이동	177
제3장 목포 주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	189
제1절 일제강점기 생활권의 형성	189
제2절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의 주거 환경	199
제3절 생활권의 확대와 원도심의 쇠퇴	209
제4절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216



목 차

contents



제3편 목포항의 역사와 해운항만

제1장 목포항의 역사적 발달	223
제1절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223
제2절 해방부터 목포신항 건설 전까지(1945~2003)	227
제3절 목포신항 건설부터 현재까지(2004~2015)	234
제2장 해운 항만과 목포 지역경제	243
제1절 목포항의 항세	243
제2절 목포항의 지역경제 기여도	253
제3장 해상 교통과 등록 선박	263
제1절 해상 교통	263
제2절 등록 선박	290

제4편 목포의 역사

제1장 목포의 뿌리	301
제1절 고종세의 '목포' 및 '목포권'과 바닷길	301
제2절 목포진(木浦鎮) 설치와 목포이야기	311
제3절 유달산과 유달봉수	325
제4절 정유재란기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337
제2장 목포의 개항기	349
제1절 목포의 개항과 각국 거류지	349
제2절 개항 초기 목포의 도시화 과정	358
제3절 개항기 목포의 노동 운동	373
제4절 대한제국기 목포의 주요 관청과 기능	384

제3장 목포의 일제강점기	395
제1절 식민지 시기 목포와 일제의 지배 구조	395
제2절 목포의 3·1운동	402
제3절 목포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408
제4절 성장과 차별, 목포의 눈물	424
제4장 목포의 현대	437
제1절 해방 이후(1945~1960) 격동의 목포	437
제2절 1960~1970년대 지역의 차별과 목포의 침체	449
제3절 1980년대 이후 목포의 새로운 도약	455
제4절 1980년대 목포의 민주화 운동	460
제5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489
제5장 목포 이야기	511
제1절 목포 최초 기록	511
제2절 일흑 삼백의 고장 목포	527
제3절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창립과 그 연혁	535
제4절 목포의 물 사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	547

제5편 목포의 문화유산

제1장 역사 유적	561
제1절 개관	562
제2절 선사 유적	568
제3절 수군진 유적	572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581



목 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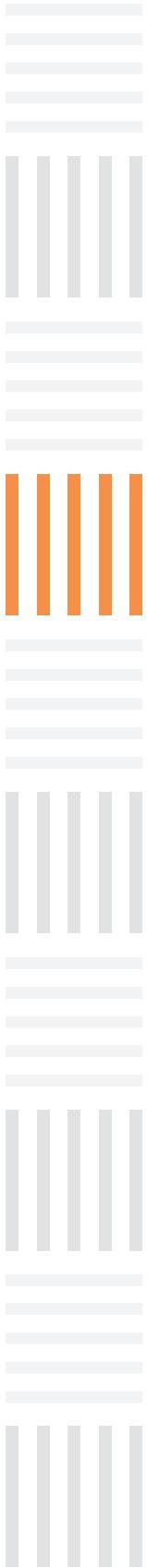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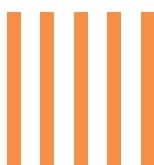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602
제6절 종교 유적	615
제7절 자연환경 유적	637
제2장 근대 건축	645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645
제2절 주거 건축	653
제3절 공공 건축	668
제4절 학교 건축	683
제5절 종교 건축	693
제6절 금융·상업 건축	710
제3장 무형문화재	735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735
제2절 옥장 장주원	736
제3절 조선장 심정후	739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741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743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746

1권_항도 목포



총론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총론

： 일등 목포의 꿈을 키우자!

1. 간추린 목포 역사

120년 전 목포는 서남해의 조그마한 수군 만호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목포는 1897년 10월 자주적 개항으로 큰 전기를 맞았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근대 도시로 손꼽힌다. 어떤 출판사의 기획물에서 ‘근대와의 만남’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그 전형적인 대상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목포였다.⁰¹⁾ 그 이유는 시골 선비 김병옥(金炳昱, 1808~1885)에서 개화 관료 김성규(金星圭, 1863~1936)를 거쳐 식민지 지식인 김우진(金祐鎮, 1897~1926)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삶이 개항을 맞는 목포의 근대와 함께 극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우진이 태어난 1897년은 목포의 근대가 시작하는 개항의 해이기도 하였다. 또한 목포는 일제강점기 근대성과 식민성이 벼무려져 있는 도시였고, 1930년대에는 전국 6대도시 3대항의 반열에 오르는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를 다루면서 목포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데는 이처럼 목포에서 근대도시 발달의 전형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 6·25전쟁으로 인한 격변을 거치면서 지쳐버린 목포는 다시 야당 도시라는 각인 하에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버렸다. 그러던 차에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졌다. 이는 목포에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란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개항 백년을 맞는 지난 1997년, 제2 개항을 선언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였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해를 마감해 가던 12월 18일 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도 부르고 싶던 이름 김대중 대통령’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의 그 기쁨은 목포 시민들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자부심도 심어주

0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조선생활관 3 -조선, 근대와 만나다-」, 『한국생활사박물관』11, 사계절, 2004.

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더욱 값진 유산이 되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이 건설되면서 목포는 땅과 바다, 하늘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요충으로 성장할 토대들을 마련하였다. 2004년 목포에도 고속 열차가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남악에 신도청이 개청하면서 '신도청 시대'의 막도 열렸다.

이어지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J프로젝트, '서남권종합발전 구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등 이른바 거대 프로젝트 시대를 맞으며 부푼 꿈에 젖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2%, 아니 그 이상이 부족했다. 특히 정치적 소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장애로 다가왔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기의 노력들은 이어졌다.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이란 숙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전남의 수위(首位)도시를 지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7년 목포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2. 『목포시사』의 편찬 방향

"역사는 옛 것이지만, 낡은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목포의 지나온 역사가 남긴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보다 나은 목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사』 편찬을 통해, 목포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의 과거들을 정리함으로써 미래 전략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목포의 정체성 정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살고 싶은 목포로 거듭 나게 하고자 하였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1987년에 I 차, 1990~1991년에 II 차로 나누어 『목포시사』를 발간하였다. 그 때 『목포시사』는 1980년까지가 대상이었다. 그리고 1997년에 다시 1980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를 대상으로 III 차 『목포시사』를 발간하였다. II 차와 III 차는 I 차의 보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목포시사』 전5권은 I 차로부터는 30년, III 차로부터 계산해도 2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야 하였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목포 자체가 달라진데다, 정치 지형도 달라졌고, 역사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따라서 1997년 이후 현재까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목포 역사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전면 재작성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홍률 목포시장, 상임위원 고석규 목포대 교수)를 두어 목포시(문화예술과) 직영으로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었고, 전5권의 발간에 사업비는 총 6억 3천1백만 원이었다.

『목포시사』의 서술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선사 시대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발간일인 2017년 12월까지의 사정도 필요한 경우 반영하였다. 공간적으로는 행정 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목포지킴이들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목포시사』, 대중과 소통하는 『목포시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다양성, 전문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집필진을 구성하되, 가급적 지역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시사’를 지향하였다. 역사의 대중화는 요즘 대세이기도 하지만, ‘시사’야말로 공공의 역사 이른바 ‘퍼블릭 히스토리(public history)’의 대표적 영역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일환으로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또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자료·도표·그림·지도 등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나아가 관련 기관·단체, 연구자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사’ 발간에 대한 학계의 최근 동향, 타지역 사례까지 파악하여 ‘시사’ 편찬을 선도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목포시사』의 구성

이번 시사 편찬에서는 무엇보다 목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먼저 목포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렇게 찾은 키워드는 ‘항도’, ‘예향’, 그리고 ‘일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1권 『항도 목포』, 2권 『예향 목포』, 3권 『일등 목포』로 제목을 정하였다.

제목과 관련된 목포의 특성을 각 권의 순서에 따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먼저 1권 『항도 목포』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포는 전남의 길목이었다.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보면,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란 데서 ‘목’이란 글자를 따와 ‘목포’가 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육지와 바다를 잇는 길목이 바로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이난영의 노래로도 귀에 익숙한 이 말처럼 목포는 항구도시이다.

목포가 항구이고 특히 개항을 계기로 근대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목포의 특성으로 ‘항구 도시’를 꼽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더구나 3대항 6대도시의 추억까지 가지고 있어 항구를 떼어놓고 목포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항도 목포』가 1권의 제목이 되었다.

목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항구였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들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목포의 부두노동운동은 개항한 지 5개월 뒤인 1898년 2월 임금 인하 반대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목포 부두노동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

동이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항하여 노동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생존 투쟁을 비롯한 반제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항구도시 목포는 근대의 환희를 넣는 근대 문명의 통로였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노동운동과 같은 비판정신의 발상지이기도 하였다.

1권 『항도 목포』에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 형성 과정, 해운 항만 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목포 역사를 중심으로 장을 구성하였다. 목포 이야기, 문화유산 등도 포함하여 역사의 흔적들을 풍부하게 담으려 하였다.

2권 『예향 목포』의 키워드인 ‘예향’은 어떻게 목포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예향이란 말은 일관(一觀) 조효석 선생께서 일찍이 목포를 지칭하여 쓴 것이니 목포는 이른바 예향의 원조인 셈이다.”⁰²⁾라고 하여 단연 목포가 예향의 원조임을 말한다. 대체로 1960년대 초부터 예향이란 수식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⁰³⁾

목포는 순수 예술 190여 년의 역사를 호남 화단을 이끌어 왔기에 예향의 목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한국 근대 극문학의 개척자 김우진과 「목포의 눈물」을 부른 엘레지의 여왕 이난영(李蘭影, 1916~1965)도 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도 김환기부터 박화성, 차범석, 허건, 최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섯이나 되고, 시립으로 운영하는 예술 단체가 여섯 개나 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예향 목포답게 이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예향을 목포의 키워드로 삼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2권 『예향 목포』에서는 목포의 문화적 상징인 예향 관련된 주제들, 즉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관광, 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을 다루었다.

집필에는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특히 문학 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목포예총 산하 각 예술 단체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쓰는 ‘시사’는 특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리로, 몸으로, 봇으로, 정으로, 카메라로 작업하던 예술인들이 글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민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였다. 다만 ‘글 쓰는 일’ 자체는 각 필자들의 전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술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서술의 주체 즉, 주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진짜 글 쓰는 전문가인 김선태 교수는 목포 문학의 계보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조은정 교수도 목포 미술의 역사를 평론가답게 새

02) 주정연, 「예향 문인의 주소」, 『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 69쪽.

03) 김병고, 「목포는 예향인가」, 『목포예총』9, 한국예총목포지부, 2000, 72쪽.

로운 시각으로 잘 정리해 주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예향 목포를 새롭게 조명할 주옥같은 글들을 계재하였다.

3권의 제목은 『일등 목포』이다. ‘항도 목포’, ‘예향 목포’는 오히려 익숙한데 ‘일등 목포’라고 하면 낯설다. 그런데 필자는 감히 항도, 예향에 더해 일등이란 표현을 덧붙이고 싶다. 현실이 힘들게 해도 꿈,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목포의 꿈,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일등 목포’라는 꿈은 어떨까?

왜 ‘일등 목포’인가? 목포는 전남의 수위 도시이다. 즉 일등 도시란 뜻이다. 전남의 자치단체 서열에서 목포는 1위에 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의 순이다. 인구는 비록 3위로 밀렸지만, 도시의 행정 서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수위 도시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목포는 ‘전남의 현관이요 물산 집합의 중심지로 조선에서는 제3위를 점령할만한 중요 항’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목포는 ‘대한민국 굴지의 상공업 도시이며 대양을 제패하려는 기세약약(氣勢躍躍)한 12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전남의 일등 도시였다.

목포는 원양 어업에 응비할 기초를 확립하는 등 수산 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공업에서 도 남한 5대 견직 공장의 하나인 목포직물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동양 3대 공장을 능가했던 한국 요업 계의 총아, 행남사, 남한 제1의 규모와 생산율을 자랑하는 대동유지화학회사, 남한 굴지의 조선면화 회사, 약진일로의 전남고무공업회사, 동양 유일의 대성방직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공장뿐 아니라 유통의 중심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민간 해운을 좌우하며 연안을 제패한 남일운수회사, 전남 일대의 유류 분배를 담당하는 남조선미유(美油)주식회사 등이 있었고, 한국은행 목포지점은 1908년 창설된 이래 꾸준히 목포의 금융을 관리해 오고 있어 목포는 여전히 서남권 중소기업들의 금융 중심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60여 년 전 목포는 명실상부 전남의 일등 도시였다. 아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게 다만 훌려간 옛 이야기일까? ‘일등 목포’의 꿈을 꾸자는 것은 다만 옛 영화를 말하며 위안을 삼자고 하는 뜻은 아니다. 실질적 수위로 이끌어 가자는 뜻을 담았다.

오늘날 이를 재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하기만 할까?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전남도청이 109년 만에 ‘광주 청사’ 시대를 접고 지난 2005년 11월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아리 일대로 옮겨 개청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곳은 목포로부터 500m 떨어진 무안군에 속하지만, 사실상 목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로써 목포는 전남의 행정 일번지가 되었다.

또 2009년 6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도 광주 매곡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 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처럼 도청은 물론,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의 기관들이 옮겨와 목포는 전남의

행정, 교육, 치안의 일변지가 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이만한 인프라가 있는 곳도 드물다. 외형적인 조건상 일등 목포의 모습은 갖추었다. 국도 1·2호선의 기점, 남북으로, 동서로 교차하는 근대 도로망의 출발점이 목포라는 데서 일등 목포의 자긍심도 갖는다.

유달산에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하여 이를 붙여진 해발 228m의 일등[律動]바위와 심판 받은 영혼이 이동한다 하여 이를 지어진 이동[移動]바위가 있다. 유달산의 일등바위, 언제 그 이름이 붙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등바위에 목포 미래의 꿈을 실어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3권 『일등 목포』에는 이런 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시민사회, 언론, 복지 및 의료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정기영 교수가 목포 기업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였고, 다른 글들에도 필자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하다.

한편, 4권 『터전 목포』에서는 생활사·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해 목포 시민들의 생활 문화와 삶의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온금동과 뒷개 부둣가 사람들, 오거리 사람들, 그리고 목포 토박이들의 삶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녔다. 그리하여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목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였다.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과 함께 만든 진짜 목포 이야기가 담겼다. 또 목포의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여기에 담았다.

아울러 10년 내지 20년을 주기로 편찬되는 시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목포시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또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지역사 자료를 충실히 수집·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런 뜻을 5권 『기록 목포』에 담았다.

특히 발로 뛰면서 찾아낸 개인 소장 자료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새로 소개되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목포 관련 역사 자료, 인문 자료, 사진 자료들도 폭넓게 수집·정리하였고,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들도 이곳에 모아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4. 『목포시사』 발간 이후 관리 방안

시사 편찬 후 활용 및 관리도 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사 편찬은 단지 5권의 책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저 책 발간으로 끝낸다면 이를 편찬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하고 생산한 각종 문건과 자료들은 물론 쌓아놓은 연구 기반들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10년 또는 20년 후에 시사를 편찬 하려면, 이번에 했던 지난한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따라서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기왕 만든 시사를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목포시사 편찬위원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찬 사업 종료 후 2018년 초경에 편찬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시각 자료를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목포시사』의 발간을 일반에 홍보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사 편찬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설명하는 ‘목포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사업이 될 것이다. 시사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용 책자 및 대중용 간추린 목포시사 등의 제작, 발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5. 목포의 비전



그림 1 목포시 슬로건 – ‘해맑은 목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1996년과 1997년 2년간 우리나라 주요 15개 도시별 대기 청명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목포는 국내 도시 중 ‘공기 가장 맑은 도시’로 꼽혔다.⁰⁴⁾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30년간 관측한 수평면 전일사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포는 3.89kWh/m²/day로 전국 1위였다.

이처럼 목포는 하늘이 가장 맑고, 일사량 역시 전국 1위이다. ‘태양의 도시 목포’⁰⁵⁾라고 불릴 만하다. 이 점에서 따와 목포시의 슬로건은 ‘해맑은 목포 sea & sun city MOKPO’가 되었다.

04) 『조선일보』 1999. 01. 29. 「공기 가장 맑은 도시 목포」.

05) 『조선일보』 2009. 02. 11. 「‘태양의 도시 목포’ / ‘태양光지도’ 첫선 일사량 전국 1위」.

이른바 ‘해맑은’ 도시 목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이미 말했듯이 항도 목포, 예향 목포, 일등 목포에 있다고 믿는다. 즉 ① 바다와 섬, 그리고 육지의 접점에서 항구도시로서 역할을 해왔던 목포의 지리적 가치, ② 자타가 공인하는 예술의 고향, 예향으로서 목포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③ 전남의 수위도시로서 인근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있는, 정치 1번지, 교육 1번지로서 지니는 목포의 행정적 가치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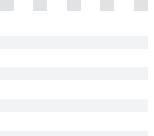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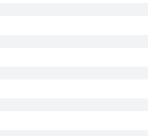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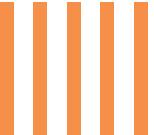
비록 인구는 3위로 밀렸지만, 도시의 서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1위 즉 수위도시의 지위에 걸맞은 인구규모, 경제력, 문화력, 그리고 인문정신 등을 갖추어 수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포의 비전을 바로 세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치,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정치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거기에 목포의 꿈을 향한 일보 전진이 있다. 미국 서부의 관문 샌프란시스코도 1848년 불과 500명의 시민으로 출발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일등 목포의 꿈을 키워 나가자.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관

<img alt="Decorative vertical bar pattern" data-bbox="125

개관

:항구와 목포

1. 『목포시사』 1권 ‘항도 목포’의 구성

『목포시사』 1권의 대주제는 ‘항도 목포’이다. ‘항도(港都)’는 항구도시를 의미한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1942년 이난영의 노래로 발표된 후 지금까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항구’는 목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목포시사』 1권은 목포가 지닌 항구적 전통과 그 발달 내력에 대한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1권의 전체 주제를 ‘항도 목포’로 설정하고, 항구도시 목포와 관련된 자연환경과 역사적 흐름을 주제별로 집필하여 수록하였다. 1권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목포의 자연환경」이다. 서남해의 길목에 자리한 목포의 지리 환경, 기후 환경, 해양 환경, 생물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삶의 환경으로서 목포의 자연 생태가 지닌 특성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목포항의 지리적 특징과 토지이용의 변천 내력, 목포의 지형과 지질의 특징, 목포의 기후 환경과 목포 주변 바다와 영산강 관련 해양환경의 특징, 목포권 생태 경관과 갯벌, 철새, 동식물상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는 「항구목포의 도시형성」이다. 일반적인 『시사(市史)』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중심으로 이루는데 이번 『목포시사』는 ‘항도 목포’라는 타이틀에 맞게 항구 목포의 도시 형성 과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인구와 공간’, ‘해운 항만 물류’를 다루었다. ‘인구와 공간’에서는 목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항구 발달이라는 측면과 개항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와 생활권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해운 항만 물류’에서는 목포항의 개발 과정, 해운 항만이 목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운업의 발달, 관련 주요 기관 등을 수록하였다.

세 번째는 「목포의 역사」이다. 크게 ‘목포의 뿌리’, ‘목포의 개항기’, ‘목포의 일제강점기’, ‘목포의 현대’, ‘목포 이야기’ 다섯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하였다. ‘목포의 뿌리’에서는 목포가 항구 도시로 발달하게 된 뿌리에 해당하는 주변 바닷길과 목포진, 봉수대, 고하도와 이순신 활동 부분을 다루었다. ‘목포의 개항기’에서는 1897년 목포가 개항 과정과 외국인 거류지 설치, 초기 목포가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개항 후 5개월 만에 발생한 목포 부두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 대한제국 시기 목포에 설치된 주요 관청과 기능을 소개하였다. ‘목포의 일제강점기’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일제의 지배 구조, 목포의 3·1운동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전개된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의 면모를 살폈다. 또한 일제강점기 전남의 대표 도시이자 항구로 발달한 면모와 그 이면에 가린 차별의 문제도 포함하였다. ‘목포의 현대’에서는 광복 이후 격동기 목포 상황과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침체되는 목포, 198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목포, 5월 항쟁기와 목포의 민주화운동 과정,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의 굴곡의 현대사를 다루었다. ‘목포 이야기’에서는 항도 목포에 얹힌 여러 가지 일화와 기억할만한 사항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주제로 접근하였다.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최초의 기록들을 정리하였고, 1혹 3백의 고장으로 불리는 목포의 특징, 유달산 자락에 자리한 목포시사(木浦詩社)에 얹힌 사연을 다루었다. 또한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물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에 주목하여 식수 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네 번째는 「목포의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와 ‘근대건축’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재의 구분은 항도 목포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선사 유적, 수군진 유적, 근대 문화 유적,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종교 유적, 자연환경 유적으로 세분화하였다. 항도 목포의 뿌리와 개항 이후 항구도시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지정 문화재 외에 비지정 문화유산도 모두 포함하였다. 목포가 개항 이후 조성된 근대건축이 특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춰 ‘근대 건축’ 편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목포 근대건축의 특징과 주거 건축, 학교 건축, 종교 건축, 상업 건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2. 역사 속에 나타난 목포의 항구적 전통⁰¹⁾

목포는 1897년 통상항(通商港)으로 개항되면서 항구도시로 성장하였다. 때문에 대부분 목포가 지닌 ‘항구로서의 특성’은 개항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

0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한국민족문화』3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부터 목포는 항구로서의 특성을 지녀왔고, 그 나름의 역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해항성(海港性)’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목포의 해항성은 주변의 영산강과 다도해가 가장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해로(海路)와 연관된 목포의 공간적 중요성과 역할이 곧 목포의 해항성이다. 이는 목포의 지명, 조운선의 길목과 수군진의 설치, 개항 직전 목포의 상황 등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목포(木浦)’라는 명칭 자체가 이 지역의 항구적 특성이 드러난 명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옛 문헌 기록에는 “이곳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깎닭에 목포라 한다.”⁰²⁾는 지명 유래가 등장한다. 따라서 목포라는 의미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 강과 바다의 경계를 이루는 목’이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즉, 목포는 영산강과 서남해가 만나는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포구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 목포는 고대부터 대외 교역로의 길목이었다. 목포가 고대부터 대외 교역로에 해당된다는 점은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주의 서남쪽에 영암군이 있는데 월출산 밑에 위치하였다. 월출산은 한껏 깨끗하고 수려하여 화성 이 하늘에 오르는 산세이다. 산 남쪽은 월남촌이고 서쪽은 구림촌이다. 신라 때 이름난 마을로서 지역이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였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조공갈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 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을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 가면 홍의도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가면 가거도에 이르며, 간방 바람을 만나면 3일이면 태주 영파부 정해현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순풍을 만나기만 하면 하루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⁰³⁾

바닷길을 이용해 신라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암 구림 쪽에서 출발했다. 구림은 영산강 하류에 속한 포구이다. 구림 지역에서 출항한 배들은 반드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포구인 목포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당시 목포에 규모를 갖춘 항구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외교역상 중요한 해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후 목포는 연안과 도서들을 대상으로 물자 수송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조운로(漕運路)로서 기능하여 왔다. 이는 목포의 해항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영산강을 통하는 조운선이 목포 해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하도(下道)의 조운이 이곳을 경유하여

0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무안현 관방 목포영조. “木浦營在縣南68里……至此入海故通稱木浦.”

03) 이중환,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9, 85쪽.

서울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⁰⁴⁾ 지리상으로 볼 때 목포는 영산강 하구를 안고 있으며, 바다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충지에 해당된다. 호남과 경상 남부 지역으로 통하는 ‘세곡 운반로’로 사용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수군진(水軍鎮)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수군진의 설치는 1439년(세종 21) 세종이 ‘목포가 왜적 침입의 요해처임으로 만호(萬戶)를 파견하여 병선을 주둔’하도록 재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⁰⁵⁾ 이것이 목포진(木浦鎮)의 출발점이다. 목포진에 성(城)이 조성된 것은 그보다 후대인 1501년(연산군 7) 때의 일이다.⁰⁶⁾ 조선 초기에는 ‘선상수어(船上守禦)’의 방침에 따라 수군 만호는 항상 병선을 이끌고 바다 위를 왕래하며 방어와 수색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해당된 수군진에는 군량과 군기를 쌓아 두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병선의 기항지 및 보급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현실적으로 선상 방어만으로 해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당 지역에 성을 축조하게 된 것이다.

목포진은 1895년(고종 32) 7월 15일 칙령 제141호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서남해의 바닷길을 지키고, 이곳을 통해 올라가는 조운선을 보호·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⁰⁷⁾ 목포진이 있었던 곳은 현 목포시 만호동(萬戶洞)이다. 목포진의 우두머리가 만호(萬戶)였기 때문에 만호진(萬戶鎮)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오늘날도 만호동으로 불리고 있다.⁰⁸⁾ 목포진의 주된 역할이 조운선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만호(木浦萬戶) 조세필(趙世弼)은 조선(漕船) 30여 척을 패몰시켰고, 조졸(漕卒)도 또한 많이 빠져 죽었으니, 비록 치죄할 형률은 없으나 마땅히 중하게 다스려 뒷사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⁰⁹⁾

목포만호의 실질적인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조운선을 보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목포진에서는 세곡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을 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 외에도 서남해 도서와 인근 지역의 일반 행정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木浦府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04)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爲木浦入于海, 下道遭運由此達于京.”

05) 『세종실록』 권85, 1439년(세종 21) 4월 15일(임진).

06) 『연산실록』 권40, 1501년(연산군 7) 1월 6일(을묘).

07) 『고종실록』 권33, 1895년(고종 32) 7월 15일(계축).

08) 김정섭, 『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 2003, 141쪽.

09) 『중종실록』 권8, 1509년(중종 4) 1509년 6월 8일(무진).

목포만호는 전라 18만호(기록에는 15만호) 중 오른팔로 수문장(水門長)이라 불리었다. 고하·비금·팔금·도초·기좌·안창·자은·장산·하의·암태·우이·흑산의 열두 섬을 관리하는데, 비금·팔금에는 영장(領將)을 분주(分駐)시켜 만호(萬戶)의 명을 받아 열두 섬의 병사(兵事)를 처리하게 하였다. 만호는 수군진영의 장(長)일 뿐 아니라 진영(鎮營) 소재 지구의 일반 행정도 관장하였다. 목포만호가 직접 관할한 곳은 이로면 관해(觀海)·용당(龍塘)·산정(山亭)·쌍교(雙橋)·목포(木浦)의 5구(區)로서 현 학교조합의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¹⁰⁾

‘수문장’이라는 별칭이 목포만호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목포만호는 인근 다도해 지역의 도서를 관할했고, 육지부에서는 목포진 관할로 인정되는 마을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측 기록인 「목포진지(木浦鎮誌)」¹¹⁾에는 ‘사리호총 민호일백삼십이호(四里戶摠 民戶一百三十二戶)’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사리(四里)는 유사 시기인 1872년 제작된 「무안목포진지도(務安木浦鎮地圖)」¹²⁾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도에는 목포 진성 주변부에 쌍교촌(雙橋村)·용당리(龍塘里)·산정리(山亭里)·관해동(觀海洞) 마을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사리는 이 마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포부사』의 기록과도 동일한 것이다.

목포진에서 일반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목포진과 관련된 선정비(善政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면에 ‘행만호방공대○○덕진솔선정비(行萬戶方公大○○德賑率善政碑)’라는 비명이 새겨진 이 비는 1714년 목포진에 근무하던 만호 방대령(方大寧)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휼을 베풀어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지역민들이 건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목포진의 역할은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백성들을 진휼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포가 조선 시대부터 ‘항도’로서의 성격을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목포의 해항성은 정유재란 시기 이 지역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597년 이순신은 명량(鳴梁)에서 승리한 후 전력을 정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물색한 후 그해 10월 29일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로 진을 옮겼다. 이곳에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선과 군비를 확충한 뒤 다음해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진을 옮길 때까지 머물렀다.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기능이 목포 앞 고하도에 형성된 것이다.

10) 목포부사편찬위원회, 『목포부사』, 목포부, 1930, 19쪽.

11) 「무안(務安)」, 『호남읍지』 10책, 1871(아세아문화사, 『읍지』 4 전라도편①, 603쪽).

12)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 서울대 규장각, 1996.

『난중일기』에는 고하도에 진을 설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목포에 이르렀다가 보화도(寶花島=고하도)로 옮겨 정박하니,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래서 육지에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¹³⁾ 고하도는 영산강의 입구에 위치하여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영산강 연안의 곡창지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또한 인근 도서에는 어염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주위의 수많은 도서는 적의 침입 시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도서 지방으로 피난 온 피난민을 병사로 보충 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이는 곧 목포의 해항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심사숙고 끝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고하도에 현존하고 있는 이충무공유허비에는 고하도의 해로상 특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섬은 남쪽, 서쪽으로 가는 바닷목에 놓여 있어 오른편으로는 경상도를 끼고 윈편으로는 서울로 연결되는 되는 바, 가까이로는 군사들을 떠여 큰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멀리로는 임금이 피난 해 계신 곳에 곡식을 바쳐 양식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이는 나라를 위하여 깊이 꾀하고 멀리 걱정한 것이요. 우연히 한 일은 아니었다.¹⁵⁾

이순신은 목포를 배후에 두고, 목포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고하도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고하도에 있는 이충무공유허비 기록은 이 지역의 해항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목포의 이러한 해항성은 개항 직전 시기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 개항되기 전부터 목포에 많은 세 곡이 집결되고, 운송되고 있었다. 『전라도관초(全羅道關草)』,¹⁶⁾ 『총관거함(總關去函)』¹⁷⁾ 등 당시 정부 기록 문서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는 호남 지방의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를 임선상납(賃船上納) 하는 곳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목포로 운반해 둔 쌀을 임선(賃船)에싣고 서울로 수송하라 하여 감관(監官) 이홍기(李興基), 김세홍

13) 이순신,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 474쪽.

14) 목포문화원, 『목포고하도수군통제영』, 1995, 5~6쪽 참조.

15) 목포문화원, 『고하도유허비』, 『목포지방문헌록』, 2002, 81쪽.

16) 1886년~1895년 개항 이후의 대외 상황·제반제도·문물 변화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전라도 지방에서 보고된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내린 관문(關文)을 모은 자료.

17) 1885년 3월 28일~1905년 11월 13일의 외부(外部)에서 총세무사(總稅務司)에 보낸 공문의 등철(謄綴).

(金世泓)에게 운반을 명해 1886년 윤선미납조(輪船未納條)를 수대로 출급(出給)했다는 보고.¹⁸⁾

개항 이전 『전라도관초』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다. 호남 인근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들이 목포로 옮겨져서 이곳에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운송되는 상황이었다.¹⁹⁾ 조운선의 거점으로서 목포의 기능이 개항 직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세곡의 운송을 위해 이미 이 시기부터 대형 윤선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희화선(希化船), 대흥윤선(大興輪船) 등 구체적인 선박의 이름도 확인된다. 1887년에는 완영(完營)에서 의정부로 “나주, 보성의 세곡윤선분배조(稅穀輪船分排條) 중 이미 목포(木浦)에 운송한 것이 7,700여 석(石)인데 윤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둘 곳이 없어 윤선의 하송(下送)을 독촉한다고 보고하자, 상해(上海)에 전보해 희화윤선(希化輪船)이 목포로 급히 가 운송해 오게 하였으니, 목포 소재 각 해읍(該邑) 감색(監色) 등에게 엄칙해 윤선을 기다리게 할 것.”이라고 조치한 기록도 남아 있다.²⁰⁾

희화선은 독일의 선박으로 당시 상해에서 직접 목포로 쌀을 싣기 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이미 1891년에 목포의 세곡을 운반해 오기 위해 일본선박인 풍도환(豐島丸)을 고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²¹⁾

그렇다면 이러한 세곡들이 집결되고 다른 배로 옮겨져서 이동하게 되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초대 지도 군수(智島郡守)를 지낸 오횡묵(吳竚默)이 남긴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瑣錄)』 중 1897년 4월 24일 기록에 등장하는 ‘물성포(物成浦)’라는 지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횡묵은 지도군 관내에 속한 압해도 등을 순행하는 과정에서 개항장으로 변모를 준비하고 있는 목포를 시찰하기 위해 잠시 들렀는데, 그 때 목포에 상륙하기 위해 내린 장소가 물성포였다. “물성포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니 여기부터 부두가 시작되는 곳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²⁾ ‘물성포’라는 명칭은 지명상의 의미로 보면 물류의 왕래가 매우 활발했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역시 목포가 공식으로 개항되는 1897년 10월 1일보다 빠른 시기이다. ‘물성포’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명만 가지고도 목포의 해항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전라도관초』, 1887년 5월 29일, 완영(完營)에서 의정부(議政府)로 보낸 문서.

19) 『전라도관초』, 1888년 6월 6일, 완영에서 의정부로 보낸 문서. “무안 등 13읍 잡복(雜卜) 및 삼주인미(三主人米)를 목포로 수송하고 장재 운변(裝載輪便)하라는 관(關)을 받았다는 보고.”

20) 『전라도관초』, 1887년 윤4월 17일, 완영에서 의정부로 보낸 문서.

21) 『종관거함』, 1891년 9월 25일 독립통리교섭통상사무(督辦統理交涉通商事務) 민(閔)이 서리 총세무사(署理總稅務司)에게 보낸 문서. “전라도 무안목포의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 고용한 일본선박 풍도환에 대하여 총세무사는 인천 세무사에게 전칙(電飭)하여 개선(開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관문(關文).”

22) 오횡묵,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2008, 243쪽.

이상과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밝힌 “하도의 조운이 이곳을 경유하여 서울에 이른다.”는 목포의 해항적 기능이 목포 개항 직전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1897년 개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도시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항구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